단순·느림·자연…빠르고 시끄러운 도심에 다양성을 입히다

똑똑한 도시 스마트 시티를 가다

❸ 뉴욕의 똑똑한 도시 정책

③ 스마트 공원

버려진 흉물 고가철길 하늘공원으로

10여년 논의 거쳐 2009년 문 열어

3단계 개발은 도시 미래와 연계 조성

지난 2004년 광주의 푸른길공원이 등장한 지 5년 뒤인 2009년 뉴욕에는 하이라인(Highline)공원이 개장했다. 기존의 평면이 아닌 선(line) 형태로, 도심을 가로지르며 삭막한 회색에 '녹색'을 가미하고 있다는 점은 똑같다. 물론 공원이 조성되기까지 개발과 보존으로 갈린 지역사회 구성원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다행히 도시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미치게끔 '보존'하기로 한 점도 유사하다.

맨해튼이라는 세계 중심가와 오랜 기간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구도심이라는 점에서, 공원 자체의 잠재력은 큰 차이가 있다. 하이라인은 푸른길공원보다 '개발 압력'이 높고 수요의 폭과 다양성 측면에서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하이라인공원의 철저한 원칙, 시민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시설, 보존만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와 연계된 추후 보완 등은 푸른길공원이 충분히 참고할만했다.

◇치열한 논쟁 끝의 결론…공원 조성=높이 솟은 초고층의 향연이 벌어지는 맨해튼에 의외로 공원이 자주 눈에 띠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지만 공원 곳곳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들 공원은 삭막한 도시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여유와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범죄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뉴욕이 세계 경제 및 유행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에 이 공원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인 2000년 이후 조성된 하이라인공원은 뉴욕에 새로운 명물로 부상했다. 매일 20만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뉴욕항, 타임스스퀘어, 브로드웨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사실 이 공원은 원래 도심 내 쓸모 없는 고가(高架)였다. 뉴욕항에서 주로 식재료를 시가지로 나르는 화물트럭이나 기차가 사용했는데, 1980년대 이후 방치되기 시작해 1999년에는 철거될 예정이었다.

1800년대에 등장해 1900년대 초반까지는 화물을 실은 기차가 다니던 철길이었는데,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고가 형태로 바꾼 뒤 1900년대 중반까지 그 역할을 계속했다. 당시에는 건물 사이를 통과하기도 했으며, 우유나 버터, 달걀 등 상하기 쉬운 재료를 저장하는 냉동창고건물이 주변에 들어서는 등 뉴욕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었다.

하지만 식재료의 운송 경로가 다양해지고, 냉동 및 냉장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고가는 흉물로 변했다. 막대한 철거비용 때문에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결국 1999년 뉴욕시와 고가 주변의 주민들이 우리의 공청회와 유사한 커뮤니티 미팅을 가져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철거해 개발할 지, 아니면 보존할 지가 핵심 안건이었다. 고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개발 후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아티스트, 건축가 등의 '보존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시가 '보존'을 결정하고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 것은 지난 2003년이다. 4년의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당시 이 고가를 선형의 수영장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까지 제출됐으나 결국 무산됐고, 다시 2005년에 디자인 재공모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됐다.

◇단순, 느림, 조용, 자연의 원칙…뉴욕과 상반=지난 2005년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는 이 하이라인공원의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Keep it Simple, Slow, Quiet, Wild'가 그것이다. 최대한 단순하게, 느리며, 조용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유니버셜 디자인과 황무지로 방치됐던 당시의 초목을 그대로 되살리는 것은 물론 철로를 남기고 납이 들어간 페인트 대신 친환경 페인트로 바꿨다. 밑바닥에 전기시설 및 하수도 배관을 설치한 후 그 위를 가벼운 흙과 돌로 꾸미고, 사계절을 감안해 꽃이나 나무로 조경한 것이 지금의 하이라인공원이다.

조명은 벤치나 난간 밑에 숨겨 밤이 되면 도시 내에서 도시가 아닌 것 같은 공간을 만들어 냈다. 중간중간에는 지역 아티스트들의 전시회나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장소와 음식점, 찻집 등도 배치돼 있다.

뉴욕 맨해튼 하이라인공원 입구의 안내판. 공원에 대한 기본 설명과 예정된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고가 위에 공원이 조성돼 있다.

10여 년의 논의 과정과 2000억원의 예산 투입을 거쳐 지난 2009년 6월9일 문을 연 이 공원은 복잡하고, 빠르며, 시끄럽고, 인공적인 뉴욕에서 또 다른 다양성을 제시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원봉사자인 린다 허먼(Linda Herman)은 "맨해튼 남서부 끝 방치된 고가철도가 생태공원으로 탄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이 공원으로 인해 주변에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 허드슨강, 맨해튼의 초고층 스카이라인 등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보존보다는 향후 방향성 지역 내 논의=보존론자와 개발론자의 조성 당시의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현재의 공원 모습으로 3단계를 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1·2단계가 생태와 자연을 강조했다면, 3단계는 도시 미래와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이 논쟁에서는 후자, 즉 나머지 0.6km를 뉴욕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600만㎡의 면적에는 사실상 신도시 수준의 개발이 지난 2012년 계획돼 막 시작된 상태다. 16개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 학교, 아파트, 레스토랑, 호텔, 오피스 등을 배치하고, 단지를 지하철과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내부에는 최첨단 쓰레기 처리 시스템 등을 갖출 예정이다. 하이라인공원을 자연과 생태는 물론 도시의 미래와 연계되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지역 공동체의 합의가 전제됐다는 것이 자원봉사자 린다 허먼의 설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뉴욕 하이라인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자세를 정하고 뉴욕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눕거나 앉거나 걷거나 팔을 괴고 주변 경관을 살피거나 모두 자유다.

하이라인공원 내 쓰레기의 부식기간을 알려주는 설치물. 자판기로 오인한 관광객들이 상당수다.